

초등교육기 이하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가치 및 규범과 행동 Housing Values, Norms and Behaviors of Young Households

양세화* 오찬옥**
Yang, Sehwa Oh, Chanohk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housing values, norms, and behaviors of young households. The purpose was accomplished using the Life Style Survey of 2001 in Ulsan, and the data from 370 households were analyzed. The importance of household income and current housing size which are used as a proxy for socioeconomic status in explaining housing values, norms, and behaviors were once again confirmed in this study, even if there were some other significant variables. This implies that housing values, norms, and behaviors tend to change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s under the conditions of controlling demographic ones.

Keywords : Housing Values, Housing Norms, Housing Behaviors, Socioeconomic Status

1. 서 론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이 성장, 발전, 쇠퇴하면서 겪게 되는 가족생활 변화에 대한 예측도구로서 이를 통해 단계별 가족의 요구와 결핍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생활주기가 주거 전반에 대한 가족의 요구나 의사결정, 행동 예측의 중대한 결정요인의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널리 입증된 바 있으며, 김대년과 홍형욱(1990)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적, 환경적 요구를 주거규범과 연결시켜 주거생활주기라는 차별화된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족생활주기는 주거학 분야의 제반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를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 또는 주거특성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들 특성과 가족생활주기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각 특성의 설명력 규명에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갓 결혼한 젊은 가구의 경우 보편적으로 적은 가족수, 낮은 소득, 협소하고 질이 낮은 주거, 타가 거주 등의 전형적인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가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인 가족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가족의 주거가치 및 규범과 행동을 사회경제적 특성의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생활주기가 갖는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고유 효과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생활주기의 여러 단계 중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를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단계의 가족은 가정 형성과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의 변화가 심하며,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과 함께 주거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탐색과 변동이 다른 단계의 가족에 비해 훨씬 빈번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경제력이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따른 제약 조건이 많아 원하는 방향으로의 주거조절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주거결핍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주거에 대해 불만족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대년, 홍형욱, 1990).

이처럼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의 가족은 다른 단계의 가족에 비해 주거에 관한 요구나 선택, 의사결정 등 주생활 전반에 있어 보다 다이나믹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생활주기를 통제된 상태

*정회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설명변인의 효과 왜곡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생활과 관련된 제반 소비 시장에서의 수요 예측이나 정책 입안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거가치 및 주거규범과 행동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의 주거가치, 주거규범, 주거행동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고, 둘째, 이러한 주거가치 및 주거규범과 행동이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간에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초등교육기 이하 가구의 주생활 특성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족생활주기를 만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분류 단계는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만자녀가 초등학교기 이하에 있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이 단계에 속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주생활 특성을 알아보았다.

결혼하여 4년 미만 된 신혼가구 즉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족은 직장관계, 거리, 교통편리, 시대 및 친정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을 결정하며, 이들은 대형 가전제품과 가구의 구입추세에 따라 주거공간 면적에 비해 과중한 양의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이기춘 외, 1992).

주거공간 사용방식을 보면, 초등교육기의 가족은 대학교육기 가족에 비하여 거실에서 비공식 접대행위를 하는 경우와, 식당/부엌에서 가족단위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안방에서 가사작업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가 적었다(김미희, 1992). 자녀들의 경우를 보면, 0-2세의 자녀는 거실과 안방에서 대부분의 일상 생활이 이뤄지며, 3-6세의 자녀는 거실과 자녀실로 행위가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8세 이상 자녀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거실과 자녀실로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나(박현아, 박용환, 2001), 자녀가 성장함에 따

라 실의 용도에 따른 행위가 명확해지며 자기 방의 사용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거공간의 구성 및 자녀실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아 방수가 적은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은 일상적인 행동들을 거실에서 더 많이 하고, 개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넓은 면적의 방을 사용하는 자녀가 그 곳에서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박현아, 박용환, 2001). 또한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취침하며 부분적으로 만자녀의 개실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만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가족은 이성자녀 간에도 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모와 분화되지 않은 취침형태도 지속되고 있었으며, 만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인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취침실을 공유하는 경우와 분화하는 경우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박현아, 박용환, 2001).

가구사용 행태를 보면, 초등학교기 가족은 안방에서 침대와 화장대 같은 입식가구를 사용하고, 거실의 소파 배치 형태는 일자형 배치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등교육기 가족이 중등교육기나 대학교육기 가족에 비하여 일반장식품이나 고급장식품을 적게 보유하고 있었다(김미희, 1992).

이상 초등교육기 이하 가구의 주생활 특성을 보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실의 용도에 따른 행위가 명확해져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거실과 안방에서 이루어지다가 개인생활은 침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주거공간에 비해 많은 양의 가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식품은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초등교육기 이하의 가구가 어떠한 주거행동을 통해 주거분위기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는 미흡하였다.

2. 초등교육기 이하 가구의 주거의식 전반

형성기 가족은 각종 설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강하였으며 따라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형성기 가족은 시설 좋은 임대주택, 잘 짜여진 불박이 가구와 탁 트인 거실구조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았고, 대형 가사공간과 접대공간, 비밀상적인 생활물품 등의 공동사용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시설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탁아시설과 여가생활공간, 자가용 보유에 필요한 주차 및

세차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이기춘 외, 1992).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도심지 근무자는 도심주거를 선호하지 않고 도심 주변지역을 선호하였으며, 주거유형으로는 역시 아파트를 선호하였다(임준홍, 김한수, 2001).

외부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보면, 형성기이며 2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자녀 돌보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들은 주택이 협소한데서 오는 내부생활의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의 일부를 주택 밖으로 빼내어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과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가 강하였다. 확대초기이며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자녀를 위한 시설, 자기개발을 위한 시설, 생활공유 및 편리성을 위한 시설,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민공유공간에 있기를 원하였다(이연숙 외, 1997). 또한 초등교육기 가족은 다른 단계에 있는 가족보다 자전거 보관소와 실내놀이터를 더 원하는 반면, 실내정원이나, 산책로 및 조깅코스, 공동공부방은 덜 원하였다(김미희, 손승광, 문희정, 2000).

한편 초등교육기의 주부는 이웃관계와 공공편의시설, 주거지 분위기, 경관/경치성,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중요도 인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려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조성희, 강혜경, 2000).

이상을 보면, 초등교육기 이하의 가구들의 주거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녀와 관련한 공동시설에 대한 요구와, 주거지역 및 주택유형에 대한 요구에 관한 연구들이었으며, 구체적인 주거단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울산시 거주자의 생활양식 분석(김혜경·양세화, 2000)」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울산시 거주가구의 생활양식을 의·식·주생활, 가족생활, 여가 및 건강생활, 소비생활, 정보지식 추구생활의 7개 측면으로 세분화하고, 각 측면을 구성하는 세부 문항에 대한 가족의 가치관, 의견, 태도 등을 통해 그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다양한 생활주기의 가구를 고루 표집하기 위해 생활주기를 만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기, 초등교육기, 중등교육기, 성인기 및 결혼기의 4단계로 구분하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문화센터, 반상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주부 800명(단계별 2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이며, 회수된 777부 중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집단인 자녀출산 및 양육기(196가구)와 초등교육기(174가구)에 속하는 총 370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인

주거의식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원자료(김혜경·양세화, 2000)가 포함하고 있는 주생활 관련 16문항에서 주거규범 4문항, 주거가치 4문항, 주거행동 3문항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1).

주거가치 문항은 Beyer(1949) 및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여 경제성(주택은 다른 측면보다 재산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개성표현(실내공간은 기능이나 편안함보다는 가족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편리성(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설비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좋다).

표 1. 주거가치 및 주거규범과 주거행동의 측정

변인명	측 정
주거가치	경제성 - 주택은 다른 측면보다 재산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개성표현 - 실내공간은 기능이나 편안함보다는 가족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편리성 -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설비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좋다
주거규범	가족중심주의 - 방은 좁더라도 거실이 넓은 것이 좋다
	주택유형 - 아파트는 우리 가족에게 바람직한 주택유형이다
	위치 - 집은 무엇보다도 도심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
주거행동	주택소유형태 - 아무리 힘들어도 내 집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공간규모 - 같은 평수라도 방이 많은 것이 좋다
	일년에 한 두번 정도는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꾸며본다
주거행동	방안의 가구나 장식물의 위치를 자주 바꾸는 편이다
	가구 구입시 디자인보다는 우리 집의 형편을 고려한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초등교육기 이하의 가구로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만자녀 연령이 만 0-5세, 초등교육기는 만 6-12세인 가구를 말한다.

변경하는 것도 좋다), 가족중심주의(방은 좁더라도 거실이 넓은 것이 좋다)의 4개 가치로, 주거규범은 Morris와 Winter(1978) 등을 토대로 주택유형(아파트는 우리 가족에게 바람직한 주택유형이다), 위치(집은 무엇보다도 도심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 주택소유형태(아무리 힘들어도 내 집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공간규모(같은 평수라도 방이 많은 것이 좋다)에 관한 규범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주거행동은 ‘일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꾸며본다’, ‘방안의 가구나 장식물의 위치를 자주 바꾸는 편이다’, ‘가구 구입시 디자인보다는 우리 집의 형편을 고려한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주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과 의견일치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명변수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가장의 직업, 가장의 학력, 연평균소득, 현 주택의 유형, 소유형태 및 규모를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 특성

<표 2>는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 특성을 나타낸다. 조사대상 가구인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의 일반 특성은 가장의 학력과 연평균 소득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같은 분포를 보였다. 가족수는 4인인 경우가 6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명인 경우로 23.7%였는데, 초등교육기의 경우는 4인인 경우가 79.3%나 되었다. 가장의 학력은 전체적으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53.5%로 반 이상이었으나 초등교육기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53.9%로 더 많았다. 가장의 직업은 일반사무직인 경우가 65.2%로 많았으며, 연평균 소득은 전체의 경우 3000-4000만원 미만과 2000-3000만원 미만이 각각 36.8%와 31.5%로 많았으나,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구는 2000-3000만원 미만이 38.3%로 3000-40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더 많았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57.2%로 많았으며 그 비율은 초등교육기 가구가 61.3%로 더 많았다.

표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 특성

N=370 (단위: f %)

생활주기일반특성	전 체	자녀출산및 양육기	초등교육기
가족수:	363(100)	189(100)	174(100)
2명이하	5(1.4)	1(0.5)	4(2.3)
3명	86(23.7)	69(36.5)	17(9.8)
4명	251(69.1)	113(59.8)	138(79.3)
5명 이상	21(5.8)	6(3.2)	15(8.6)
가장의 학력:	353(100)	188(100)	165(100)
고등학교졸업 이하	164(46.5)	75(39.9)	89(53.9)
대학교졸업 이상	189(53.5)	113(60.1)	76(46.1)
가장의 직업:	333(100)	173(100)	160(100)
판매서비스직	51(15.3)	25(14.5)	26(16.3)
기능직	23(6.9)	9(5.2)	14(8.8)
일반사무직	217(65.2)	120(69.4)	97(60.6)
전문직/행정관리직	42(12.6)	19(11.0)	23(14.4)
연평균소득:	359(100)	188(100)	171(100)
2000만원 미만	64(17.8)	32(17.0)	32(18.7)
2000-3000만원미만	113(31.5)	72(38.3)	41(24.0)
3000-4000만원미만	132(36.8)	62(33.0)	70(40.9)
4000만원 이상	50(13.9)	22(11.7)	28(16.4)
주택소유형태:	353(100)	190(100)	163(100)
자가	202(57.2)	102(53.7)	100(61.3)
타가	151(42.8)	88(46.3)	63(38.7)
주택유형:	357(100)	188(100)	169(100)
아파트	216(60.5)	120(63.8)	96(56.8)
단독주택	54(15.1)	24(12.8)	30(17.8)
기타(다세대/다가구)	87(24.4)	44(23.4)	43(25.4)
주택규모:	308(100)	161(100)	147(100)
30평 미만	224(72.7)	133(82.6)	91(61.9)
30-40평 미만	62(20.1)	23(14.3)	39(26.5)
40평 이상	22(7.1)	5(3.1)	17(11.6)

주택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60.5%였으며, 주택규모는 30평 미만이 7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40평 미만이 20.1%였다.

2.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의 주거가치, 주거규범, 주거행동 비교

<표 3>은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가치, 주거규범, 주거행동의 각 항목을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로 나누어 이 두 집단을 비교하여 본 것이다. 주거가치의 경우,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구와 초

표 3.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구와 초등교육기 가구의 주거가치, 주거규범, 주거행동 비교

	전체 (370)	출산및 양육기 (196)	초등 교육기 (174)	t-value
주거가치:				
가족중심주의	3.56	3.60	3.52	1.777*
경제성	2.79	2.85	2.72	1.307
개성표현	2.91	2.85	2.97	-1.158
편리성	3.56	3.58	3.55	.310
주거규범:				
주택유형	3.56	3.63	3.48	1.562
공간규모	2.63	2.58	2.69	-1.090
위치	3.38	3.33	3.44	-1.092
소유형태	3.32	3.25	3.40	-1.395
주거행동:				
집안 분위기를~	3.25	3.21	3.28	-.741
가구나 장식물의 위치를~	2.96	2.96	2.97	-.122
가구구입시 ~	3.42	3.32	3.53	-2.381*

*p<.05

등교육기 가구 모두 가족중심주의와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경제성과 개성표현은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구와 초등교육기 가구를 비교한 결과 가족중심주의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구가 초등교육기 가구보다 가족중심주의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규범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 모두 ‘아파트가 바람직한 주택유형’이라는 주택유형에 관한 규범과, ‘집은 무엇보다도 도심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는 위치에 관한 규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집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주택소유형태에 관한 규범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였으나 ‘같은 평수라도 방이 많은 것이 좋다’는 공간규모에 관한 규범에 대해서는 비교적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성향은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구와 초등교육기 가구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자녀출산 및 양육기과 초등교육기 가구의 주거규범에 대한 생각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행동의 경우, 가구 구입시 디자인보다는 집의 형편, 즉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성향이 강하였다. 집안 분위기를 일년에 한 두 번 정도 새롭게 꾸며본

다는 성향도 비교적 있었으나 가구나 장식물의 위치를 자주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행동 중 가구 구입시 디자인보다 집의 형편을 고려하는 행동 성향은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구와 초등교육기 가구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초등교육기 가구가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구보다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가치

<표 4>는 조사대상인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의 주거가치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관계를 요약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연소득과 가족중심주의 가치(p<.05), 주택규모와 경제성 가치(p<.01)에서만 나타났다.

연소득이 3000-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2000만원 미만인 가구보다 가족중심주의를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가족중심주의 측면의 주거가치란 주거를 통해 가족간의 친밀감과 긴밀한 유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생활주기에 따라 이에 대한 중요성은 달라지며, 주거선택 시 이를 위한 식사공간이나 가족실, 또는 외부공간에 대한 요구로 연결될 수 있다(이경희 외, 1999). 초등학생 이하의 만자녀를 두고 있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의 경우, 자녀들이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자연 각 방은 좁더라도 거실을 넓게 하여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구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0평 이상의 큰 평형에 사는 가구가 30평 미만의 작은 평형에 사는 가구보다 주거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주거의 경제적 가치는 초등교육기 이하의 젊은 가구일지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중·대형 주택에 살 경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주거의 개성표현 가치와 편리성 가치의 경우,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구나 초등교육기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거의 개성표현 가치는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반해 편리성 가치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거가치

N = 370¹⁾

일반특성	주거가치		가족중심주의가치		경제성가치		개성표현가치		편리성가치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가장의 직업:										
판매서비스직 (51)	3.63	-	2.65	-	3.10	-	3.45	-		
기능직 (23)	3.26	-	2.96	-	3.00	-	3.48	-		
일반사무직 (217)	3.58	-	2.79	-	2.85	-	3.53	-		
전문직/행정관리직 (42)	3.64	-	2.62	-	2.79	-	3.88	-		
계 (333)	F= .858		F= .945		F= 1.243		F= 1.938			
가장의 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164)	3.47	-	2.81	-	2.96	-	3.52	-		
대학교졸업이상 (189)	3.63	-	2.79	-	2.86	-	3.62	-		
계 (353)	t= -1.536		t= .223		t= 1.004		t= -1.087			
연평균소득:										
2000만원 미만 (64)	3.36	a	2.69	-	2.81	-	3.41	-		
2000-3000만원미만 (113)	3.48	a b	2.83	-	2.83	-	3.59	-		
3000-4000만원미만 (132)	3.76	b	2.80	-	3.00	-	3.70	-		
4000만원 이상 (50)	3.50	a b	2.90	-	2.92	-	3.42	-		
계 (359)	F= 3.074*		F= .535		F= .894		F= 1.963			
주택유형 :										
아파트 (216)	3.61	-	2.82	-	2.86	-	3.63	-		
단독주택 (54)	3.63	-	2.78	-	3.15	-	3.67	-		
기타(다세대/다가구)(87)	3.43	-	2.75	-	2.87	-	3.46	-		
계 (357)	F= 1.248		F= .197		F= 2.184		F= 1.255			
주택소유형태:										
자가 (202)	3.61	-	2.77	-	2.87	-	3.63	-		
타가 (151)	3.50	-	2.80	-	2.92	-	3.48	-		
계 (353)	t= .112		t= .089		t= .619		t= 1.444			
주택규모:										
30평 미만 (224)	3.58	-	2.68	a	2.82	-	3.60	-		
30-40평 미만 (62)	3.50	-	3.06	a b	2.92	-	3.68	-		
40평 이상 (22)	3.77	-	3.14	b	3.27	-	3.64	-		
계 (308)	F= .610		F= 5.601**		F= 2.491		F= .192			

*p<.05 **p<.01 ***p<.001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들의 주거가치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규범

<표 5>는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규범과의 관계를 요약한 것이다. 유의적인 관계는 가장의 직업과 주택유형 규범, 가장의 학력과 주택유형 규범, 연평균 소득과 주택유형 규범 및 소유형태

규범, 현 주택의 유형과 주택유형 규범, 현 주택의 소유형태와 위치 규범, 현주택의 규모와 주택유형 규범, 공간규모 규범, 및 소유형태 규범에서 나타났다.

가장이 전문직이나 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가장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재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규모가 큰 주택에 거주할수록 아파트를 현재 자신들의 가족에게 바람직한 주택유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결

표 5.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거규범

N = 370¹⁾

일반특성	주거가치	주택유형규범		공간규모규범		위치규범		소유형태규범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가장의 직업:									
	판매서비스직 (51)	3.33	a b	2.55	-	3.37	-	3.37	-
	기능직 (23)	3.09	a	2.91	-	3.30	-	3.17	-
	일반사무직 (217)	3.59	a b	2.59	-	3.34	-	3.30	-
	전문직/행정관리직 (42)	3.79	b	2.60	-	3.40	-	3.26	-
	계 (333)	F= 3.802*		F= .879		F= .091		F= .218	
가장의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164)	3.34		2.71	-	3.35	-	3.31	-
	대학교졸업 이상 (189)	3.75		2.55	-	3.41	-	3.33	-
	계 (353)	t= -4.224***		t= 1.609		t= -.652		t= -.156	
연평균소득:									
	2000만원 미만 (64)	3.23	a	2.53	-	3.14	-	3.06	a
	2000-3000만원 미만 (113)	3.69	b	2.55	-	3.42	-	3.20	a
	3000-4000만원 미만 (132)	3.66	b	2.70	-	3.36	-	3.41	a b
	4000만원 이상 (50)	3.48	a b	2.68	-	3.60	-	3.72	b
	계 (359)	F= 4.175**		F= .814		F= 2.468		F= 4.922**	
주택유형 :									
	아파트 (216)	3.77	a	2.68	-	3.34	-	3.38	-
	단독주택 (54)	3.00	b	2.52	-	3.57	-	3.43	-
	기타(다세대/다가구)(87)	3.44	c	2.57	-	3.39	-	3.18	-
	계 (357)	F= 18.001***		F= .824		F= 1.402		F= 1.370	
주택소유형태:									
	자가 (202)	3.62	-	2.68	-	3.34	-	3.42	-
	타가 (151)	3.48	-	2.61	-	3.46	-	3.15	-
	계 (353)	t= .174		t= .119		t= 4.199*		t= .014	
주택규모:									
	30평 미만 (224)	3.56	-	2.54	-	3.31	-	3.23	a
	30-40평 미만 (62)	3.94	-	2.89	-	3.47	-	3.68	b
	40평 이상 (22)	3.68	-	2.89	-	3.50	-	3.73	b
	계 (308)	F= 4.247*		F= 3.818*		F= .904		F= 6.592**	

*p<.05 **p<.01 ***p<.001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과 일치하지 않음

과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또한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30평 이상이 되면 같은 평수라도 방수가 많기를 바라는 공간규모 규범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3점 미만으로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은 평수의 경우 방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방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어 그 성향이 약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집은 무엇보다도 도심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는 위치에 대한 규범은 현재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다소 약한 경향을 보였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비교적 오랜 기간 거주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중요시하여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 반면, 임대 시에는 비교적 단기

간 거주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장과의 관계 등 생활의 편리성을 더 중요시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소득 수준이 4000만원 이상이 되고, 또 현 거주 주택의 평수가 30평 이상인 가구가 내 집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자가소유 규범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p < .001$).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자기 집 마련이 어려우므로 자가소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 소유의 집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30평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그만큼 자기 집 마련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가소유 규범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행동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행동간의 관계는 <표 6>과 같다. 현 주택의 규모는 '일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꾸며본다'와

표 6.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거행동

N = 370¹⁾

일반특성	주거가치		일년에 한두번 정도는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꾸며본다		방안의 가구나 장식물의 위치를 새롭게 꾸며본다		가구구입시 디자인보다는 우리 집의 형편을 고려한다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가장의 직업:								
판매서비스직 (51)	3.25	-	2.86	-	3.63	-		
기능직 (23)	3.35	-	2.70	-	3.43	-		
일반사무직 (217)	3.17	-	2.94	-	3.35	-		
전문직/행정관리직 (42)	3.33	-	3.14	-	3.55	-		
계 (333)	F= .657		F= 1.293		F= 1.598			
가장의 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164)	3.23	-	2.98	-	3.52	-		
대학교졸업이상 (189)	3.24	-	2.95	-	3.34	-		
계 (353)	t= -.069		t= .231		t= 1.959*			
연평균소득:								
2000만원 미만 (64)	3.28	-	2.80	-	3.69	b		
2000-3000만원미만 (113)	3.19	-	3.06	-	3.35	a		
3000-4000만원미만 (132)	3.23	-	3.96	-	3.36	a		
4000만원 이상 (50)	3.28	-	3.94	-	3.46	ab		
계 (359)	F= .226		F= 1.104		F= 2.604*			
주택유형 :								
아파트 (216)	3.17	-	2.94	-	3.33	a		
단독주택 (54)	3.37	-	2.93	-	3.67	b		
기타(다세대/다가구)(87)	3.31	-	2.98	-	3.44	a b		
계 (357)	F= 1.583		F= .074		F= 3.285*			
주택소유형태:								
자가 (202)	3.19	-	2.98	-	3.42	-		
타가 (151)	3.28	-	2.93	-	3.41	-		
계 (353)	t= .482		t= .104		t= .351			
주택규모:								
30평 미만 (224)	3.14	a	2.90	a	3.36	-		
30-40평 미만 (62)	3.35	a	3.08	a b	3.48	-		
40평 이상 (22)	3.77	b	3.36	b	3.59	-		
계 (308)	F= 6.026**		F= 2.952*		F= 1.065			

*p<.05 **p<.01 ***p<.001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과 일치하지 않음

‘방안의 가구나 장식물의 위치를 새롭게 꾸며본다’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현재 40평이상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일수록 가구나 장식물의 위치 변경 등을 통해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꾸미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 구입 시 디자인보다는 우리 집의 형편을 고려한다’는 문항은 가장의 학력과 연소득, 현 주택의 유형이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장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거나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구를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구와 초등교육기 가구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가장의 학력이 낮은 경우, 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교적 경제적인 주거행동을 하고 있었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가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에 속하는 비교적 동질집단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가치와 규범, 그리고 행동을 분석하였다. 가족생활주기를 통제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생활주기로 인한 효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거가치나 규범, 행동 등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의 가구는 방은 다소 좁아도 거실이 넓어야 하고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설비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가치의 여러 측면 중 가족 중심주의와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이 한창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친밀감과 유대를 위한 가족중심적 활동을 주거가 지원해 주어야 하고, 또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라 커지는 주거의 질적 향상이나 공간에 대한 요구를 위해 구조 변경이나 설비 지원을 통한 편리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반면 경제성과 개성표현 측면에서의 주거가치는 덜 중요시하였다. 즉 이 단계의 가구는 주택이 투자가치나 재산 차

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주택의 실내 공간이 기능이나 편안함보다 가족의 개성을 나타내야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적었다.

둘째,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는 아파트를 바람직한 주택유형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집은 도심에 가까이 위치해야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집은 반드시 가져야한다는 소유권에 대한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주택유형 및 소유권과 관련된 결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나라 중산층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아파트 선호 현상과 젊은 층에서 약화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기 집 소유에 대한 규범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위치 규범과 관련해서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들에게는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해 도심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의 규범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단계의 가구는 가구 구입시 디자인보다는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며 일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꾸미며 지내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단계의 가구는 경제적 능력에 비해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지출이 많은 상황이므로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가구 구입을 하며, 젊은 층답게 집안 분위기 전환에 대한 관심은 물론 실제로 이를 수행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넷째,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6개 변수 중 소득과 주택평수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초등교육기 가구의 주거가치, 주거규범, 주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다. 주택평수와 소득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한다면, 생활주기가 통제된, 다시 말해 가족수나 가장의 연령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동질적인 상황에서 이 단계 가구의 주거가치 및 규범과 행동에 대한 지표는 결국 소득수준, 즉 가구의 경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주거행동이나 가치, 규범은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도 소득에 따라 많은 부분이 차이를 보이고 또 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고려한다면 주택 시장이나 주생활 관련 시장에서는 수요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상품 공급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주기 단계가 동일한 가구들일지라도

주택 평수나 마감재, 설비, 또는 가구나 장식물 등에 대한 요구는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인구학적 특성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대년, 홍형욱(1990). 주거생활주기 모형설정을 위한 이론적 접근.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 37-48.
2. 김미희, 손승광, 문희정(2000). 아파트 단지의 외부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도. 한국주거학회지, 11(1), 115-124.
3. 김혜경, 양세화, 김묘정, 이영수(2001). 울산시 거주 가구의 가구의 생활양식 전반 분석.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3, 1, 127-145.
4. 박현아, 박용환(2001).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른 주공간 사 용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4), 43-52.
5. 이기춘 외(1992). 신혼가 가계의 주거실태와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동학과/한샘 주거환경연구소.
6. 서정희(1996). 가정학연구방법론. 서울: 하우.
7. 이경희, 홍형욱, 윤정숙(1999). 주거학개설. 서울: 문운당.
8. 이연숙 외(1997). 거주자 특성별 주민공유공간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1), 1-12.
9. 임준홍, 김한수(2001). 도심지 근무자의 도심주거 선호성향. 한국주거학회지, 12(2), 143-150.
10. 조성희, 강해경(2000). 주거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1(1), 45-56.
11. 최목화(1991). 현대 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1), 1-12.
12. _____(1992).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Morris, E. W. and Winter, M. (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John Wiley & Sons.